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성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각적 실천을 위한 왜곡된 풍경의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전 상 희

지각적 실천을 위한 왜곡된 풍경의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정 성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전 상 희

인 준 서

전상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5년 6월

심사위원장 유 근 택 ①

심사위원 정 성 윤 ①

심사위원 노 신 경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매 순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풍경 또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평소에는 특정한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규정되던 장면들이,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 비로소 생경한 도시풍경으로 드러난다. 공간을 가득 메운 사람들, 자동차, 경적소리, 그리고 무수한 소음들은 시간과 함께 끊임없이 일렁이며 흐른다. 연구는 2022년-2023년까지의 작업과 2024년 ‘Just staying for a minute - 잠시만 머무를 뿐이에요.’ 석사학위 청구전시에 포함된 작품, 그리고 현재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논문에서는 도시풍경에서의 반복적인 것 안에서의 변화를 포착하여, 정지된 시공간이 아닌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렁이는 도시풍경을 주제로 한다. 특히, 일상적 장면의 왜곡된 형상을 패턴화하여 회화로 표현하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풍경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변형과정과 지각의 흐름을 시각화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단순히 외형적 구조물이나 반복되는 시지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체험과 감각적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형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것은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지각의 현상학을 기반으로, 지각은 고정된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몸과 감각을 통해 세계를 경험한다. 그리고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관계를 통해 영향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만들어 가는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를 디지털 왜곡과 해체, 재구성 등의 시지각 실험을 통해 재창조하는 과정을 포함

한다. 그리고 데포르마시옹 기법(Deformation)과 물성 중심의 레이어링 기법(Layering)을 활용하여 화면 위에 시간의 흔적을 겹겹이 쌓아 올리고, 감각의 흐름을 시각화한다. 이 같은 방식은 지각의 틈을 여는 감각적 장치로 기능하며, 반복되는 현실 구조를 흔드는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연구자는 자신의 회화에서 유동적 곡선과 모호한 경계, 기억의 희미함과 감각의 흔들림 등을 통해 고정된 현실에서 벗어나 해체를 하며 그 틈에서 피어나는 이상향의 모습을 시각화한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현실 너머의 새로운 감각적 차원을 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상향을 정형화된 목적지가 아닌 감각과 지각의 전환에서 출현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바라본다.

색채도 본 연구에서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는데 연구자는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918-1921)의 색채 이론을 기반으로 색은 단지 사물의 외형을 표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감정과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것들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내적인 언어처럼 기능한다. 색은 도시 풍경의 빛, 소음, 계절과 정서가 중첩되는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변화하는 시간과 기억 속에서 색채는 정형화된 속성을 넘어 유동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색채의 움직임은 감각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나아가 심리적 차원의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본 연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해체, 왜곡 중첩을 통하여 새로운 감각의 차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반복적인 일상의 풍경 속에서 감각을 유도하고,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실천을 통해 현실 너머의 이상향을 상상하고 탐색할 수 있는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01
II. 풍경의 유동적인 인식	03
1. 보편적 이미지의 탈피	04
2. 왜곡된 이미지와 시지각적 인식	08
III. 도시환경의 체험과 시간성	14
1. 도시환경의 장소감	15
2. 도시환경의 주관화된 형상과 색채	17
IV. 왜곡된 풍경으로 찾은 이상향의 표현연구	25
1. 왜곡된 선의 흐름과 반복	25
2. 형상의 왜곡을 위한 데포르마시옹 기법 탐구	33
3. 반복과 시간에 따른 패턴과 색의 재해석	39
V. 결론	45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01】 <홀러 홀러 사라지는>, 162.2×13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	12
【작품02】 <그때의 우리는>, 90.9×72.7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4ea)	17
【작품03】 <잠시만 머무를 뿐이에요>, 325.5×150cm, 장지에 혼합재료, 2023	20
【작품04】 <변화에 변화1>, 162.2×130.3cm, 장지에 채색, 2022	29
【작품05】 <변화에 변화2>, 162.2×130.3cm, 장지에 채색, 2022	29
【작품06】 <변화에 변화3>, 162.2×130.3cm, 장지에 채색, 2022	29
【작품07】 <누군가는 어디로>, 130.3×8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3	30
【작품08】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72.7×60.6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8ea)	31
【작품09】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다른 곳을 가는>, 162×6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5	32
【작품10】 <그럼에도 불구하고>, 162×6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	37
【작품11】 <홀러 홀러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100×100cm, 거울에 혼합재료 가변설치, 2024(6ea)	40
【작품12】 <멈추지 않는 1>, 22.7×15.8cm, 장지에 혼합재료, 2023	41
【작품13】 <멈추지 않는 2>, 22.7×15.8cm, 장지에 혼합재료, 2023	41

【작품14】 <불규칙적임 속에서 1>, 34.8×27.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	42
【작품15】 <불규칙적임 속에서 2>, 34.8×27.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	42
【작품16】 <곳곳이 1>, 25.8×17.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4ea)	43
【작품17】 <곳곳이 2>, 25.8×17.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12ea)	43

도 판 목 차

[도판01] <도시풍경 사진1>	04
[도판02] <재구성된 시각 장면1>	04
[도판04] 진마이어슨, <Tesseract-ual Homesick Blues>, 187×271cm, 캔버스에 유채, 2016	10
[도판04] <도시풍경 사진2>	11
[도판05] <재구성된 시각 장면2>	11
[도판06] 바실리 칸딘스키, <여러 개의 원>, 140.7×140.3cm, 캔버스에 유채, 1926, 구겐하임 미술관	21
[도판07] 바실리 칸딘스키, <구성 8>, 140.3×200.7cm, 캔버스에 유채, 1866-1944, 구겐하임 미술관	22
[도판08] <흔적의 중첩을 통한 감각적 시간성 표현연구>(레이어링 기법을 이용한 표현연구)	27
[도판09] <도시풍경 사진3>	34
[도판10] <재구성된 시각 장면3>	34
[도판11] <도시풍경 사진4>	35
[도판12] <재구성된 시각 장면4>	35
[도판13] <도시풍경 사진5>	37
[도판14] <재구성된 시각 장면5>	37
[도판15] <흘러 흘러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2024, 디테일컷1	40
[도판16] <흘러 흘러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2024, 디테일컷2	40

I. 서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단지 건물, 도로, 교통시설 같은 물리적인 요소들의 집합으로만 보기 어렵다. 도시 공간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 경험, 감정이 겹겹이 쌓아지며 형성되는 다층적인 장이다. 친숙한 장면이나 매일 마주하는 거리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며 이로 인하여 도시풍경은 하나의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과 지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진다. 연구자는 풍경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옮겨 놓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의 속 틈새에서 드러나는 이상적인 공간의 모습을 탐구하고자 한다. 일상적 장면을 왜곡과 해체를 하여 변형하는 행위는 무심코 지나치던 도시풍경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지 시각적 변형이 아니라 감각과 의식의 경계를 흔들며 이상적인 공간, 혹은 새로운 존재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창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반복되고 있는 도시풍경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왜곡, 해체되며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풍경을 시각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왜곡과 해체라는 시각적 표현 방식에 주목하여, 그것이 단순한 형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지각과 감각의 틈에서 본 이상향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도시풍경을 단지 물리적 배경으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 풍경으로 인식한다. 풍경은 단순히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경험과 감각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현상학 이론을 바탕으로, 감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왜곡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는 과정을 탐색한다. 그리고 진 마이어슨(Jin Meyerson,

b.1972)의 작품을 살펴보며 진마이어슨의 작품과 연구자의 작품이 어떠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도시 공간은 개인의 기억과 감정이 스며든 감각적 풍경으로 작동한다. 감정, 기억, 정서가 교차하는 지각의 장으로서 고찰한다. 이 장에서는 도시풍경이 어떻게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인식되는지를 분석하고,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918-1921)의 색채 이론을 기반으로 도시풍경을 주관화된 형상과 색채로 재구성함으로써 감각적 체험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앞선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왜곡된 풍경을 통해 이상향의 공간을 표현하는 시각적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반복되는 형태, 곡선의 흐름, 형상의 해체 등 다양한 조형적 기법을 통해 도시의 변화와 감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레이어링 기법(Layering)’과 ‘데포르마시옹(Deformation)’ 왜곡 기법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의 표현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도가 감각과 지각의 변화를 어떻게 형성해가는지 형성 방식을 중심으로 탐구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시각적인 ‘일렁임’을 정지된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닌 해체와 왜곡,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시각적 표현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풍경의 흐름과 감각이 드러나며 고정된 형상이 아닌 유동적인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특정 장소나 대상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변형되는 시간적 일렁임이 나타나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억 속에서도 왜곡되며 다른 형상으로 변형이 된다. 과거의 기억, 현시점의 경험, 다가올 시간에 대한 상상은 뒤엎히고 흩어지며, 고정되지 않는 시간의 감각을 만들어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적, 시각적 일렁임이 어떻게 감각과 지각의 어떤 변화된 맥락을 형성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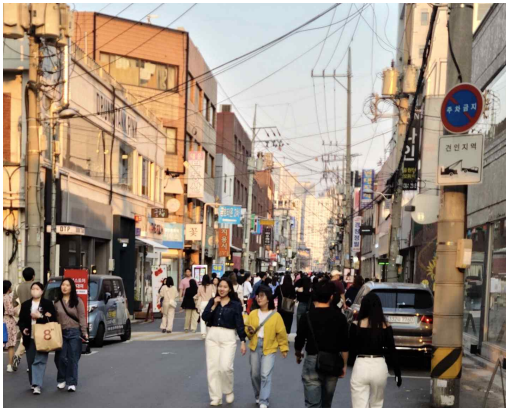
II. 풍경의 유동적인 인식

매 순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매일 마주하고 있는 장면들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규정이 되지만 그 의미를 잃어버린 순간, 일상적 맥락이 지워지자마자 그 자체로 또 다른 인식으로 바뀌며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우리가 보는 풍경은 정지된 시공간이 아니고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감각, 반복과 리듬 속에서 다른 인식의 층이 생기며 왜곡과 변형을 통해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틈에서의 이상향이 출현한다.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서 보았던 자동차들 사이에서 피어오르던 아지랑이, 그때 본인이 본 것은 마치 주변이 일렁이는 것처럼 왜곡되어 보였다. 이런 왜곡된 시각은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는 연구자 시선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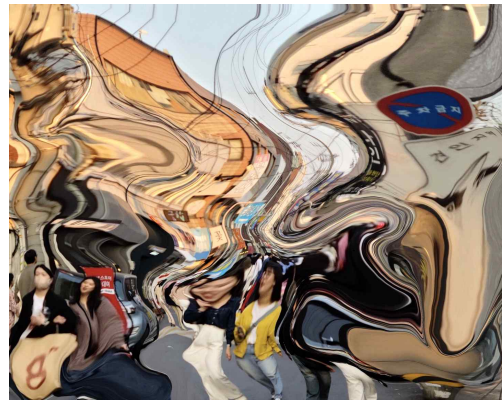
연구자는 이러한 도시 풍경의 변화를 유동적으로 인식하면서 반복적이고 고정된 현실에서 벗어나 왜곡과 해체를 통해 새로운 이상적인 세계를 찾으려고 한다. 즉, 왜곡된 이미지를 통해 연구자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시지각적으로 인식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 속에서의 새로운 이상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보편적 이미지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상향, 완성된 질서나 목적지가 아닌 경험적 사건으로 제안하며 지각의 전환에 관하여 탐구하며 왜곡된 이미지에서의 시지각이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식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1. 보편적 이미지의 탈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정적인 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각적 경험의 장이다. 매 순간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 주변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되며 감각적 순간에서의 경험을 가지게 된다. 감각적 순간의 경험을 가지게 되며 반복되는 감각 즉, 반복되는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꿈꾼다. 여기에서의 이상향은 실제로 실현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념으로서의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사물의 바람직한 상태를 뜻한다. 연구자에게 이상향은 보편적 이미지, 반복되는 삶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도판 01] <도시풍경 사진1>



[도판 02] <재구성된 시각 장면1>

[도판 01] <도시풍경 사진1>, [도판 02] <재구성된 시각 장면1>를 보게 되면 연구자는 원래의 풍경을 디지털 작업으로 왜곡 및 해체 작업을 한다. 일상의 흘러가는 풍경들에서 보여지는 반복적인 형태의 건물들과 구조등과 같이 반복에서의 현실도피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왜곡 및 해체를 하는 작업은 반복되는 현실의 것들에서 전환이 필요하였다. 반복되는 풍경이 재창조나 재구성으로 주어지며 정지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반복되는 도시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시간성과 감각적 흐름이 가장 밀도 높게 응축된 공간으로 보며 도시의 풍경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해체되고 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지각 또한 지속적으로 재조정 되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시각적 환경은 반복과 변형, 왜곡을 통해 새로운 인식의 틈을 만들어낸다. 이는 정지된 장면이 아닌, 감각과 지각이 실시간으로 맞물리는 살아 있는 장으로 기능한다. 그러한 것들을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도 지각의 한 형태이며, 감각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은 의식의 일부가 아니라 대상을 구성하는 속성에 해당한다.

우리가 감각을 통해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경험은 단순히 의식 속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대상이 가지는 속성이나 지각할 수 있는 전체적인 풍경만큼 풍부하고 모호하다는 것이다.¹⁾ 대상을 지각하는 나의 현재는 지금 바로 그 순간의 사실적 현재이지만 지속적 흐름에 의해 객관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멈추고, 과거 파지(retention)와 미래 예지(protection)의 이중적 관점을 소유하고 있다.²⁾

연구자는 사진을 왜곡하고 해체하여 새로운 시각적 형상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반복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상향을 탐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왜곡은 단순한 형태의 변형이 아니라 지각의 틈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이러한 작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지각과 함께 보고자한다. 지각이란, 감각 기관의 자극으로 인해 생기는 외적 사물의 전체상에 대한 의식을 뜻하며, 지각의 본질인 현상학, 현상학에서부터 시작이며 현상학은 지각의 본질, 의식의 본질, 본질 자체에 관한 연구이다. 현상학의 형성 중에 있는 본질은 우리의 지각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현상학은 실존주의 철학을 입증하기

1) 모리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2, p.39.

2) 류의근,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읽기』, 세창미디어, 2016, Epub, p.27.

위한 방법으로 현상학을 사용한다.³⁾ 모리스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는 지각을 몸과 감각을 통해 세계와 관계 맺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그의 사유는 이상향을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지각이 변화하는 순간에 출현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과 깊이 맞닿아 있다. 메를로-폰티는 몸 현상학자이다. 그는 현상을 주객이 대립하는 구도에서 설명하는 경험주의나 합리주의적 지각 과정이 아니라, 주객의 대립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선험적 경험으로 보았다. 이는 객관적 세계 이면에 존재하는 선험관적이고 선험성적인 소여이며, 지향적 체험이라고 설명하였다.⁴⁾ 메를로-폰티는 지각을 주체와 세계가 서로를 형성하고 반영하는 관계적 장으로 이해하며, 지각을 통해 세계는 의미를 획득하고, 주체는 그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고정되고 닫힌 현실을 넘어, 열려 있고 생성적인 세계를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현대 시각에서는 이미지를 익숙하고 반복 가능한 형식, 규범적인 시각 질서에서의 유지로 보고 있으며, 반복을 해체함으로써 다른 세계를 감각적으로 상상하고 있다. 여기서 이것을 이상향으로 보며 이상향은 고정된 대상이 아닌 세계와의 관계 방식이 전환되는 감각적 순간으로서 경험을 하게 되며 반복되는 현실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황을 지각이 전환되는 틈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지각은 단지 시각적으로 느끼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 대상과 유대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지각되게 하는 것이다. 메를로 폰티는 지각을 세계와의 관계 맺음 또는 그 세계에 자신을 여는 방식으로 정의하며 그의 지각하는 주체와 객관적 세계 사이의 초월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존재가 내재성과 초월성이 교차하는 지점, 감각적 형상의 영역으로 되돌림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지각이 신체의 경험 과정 속에서 확립된 무수한 상들의 연

3) 모리스 메를로 폰티, 위의 책, pp13-14.

4) 조용재, 『증강현실 공간의 지각 특성-메를로-폰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54.

합이 아니라 상호 감각적인 세계에서 나 자신에 대한 의식적, 전체적인 파악이고 감각 운동적인 통일성이라고 보고 있다.⁵⁾

지각은 매 순간 매일의 세계의 재창조나 재구성으로 주어지며 정지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열리고 생성되는 과정으로 보며 왜곡과 해체를 통해 감각의 틈이 열려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의 감각을 불러일으켜 이상향적 감각이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지각의 변화는 단순한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을 통하여 나의 움직임과 나의 눈은 세계를 진동하게 하며⁶⁾ 그러한 경험이 감각은 더 이상 혼합된 재료, 추상적 계기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의 접촉하는 면이고, 의식의 구조이며, 공간의 모든 성질들의 보편적 조건이다.⁷⁾

그러한 지각적 경험들을 가지고 연구자는 왜곡과 해체를 통해 현실 세계의 풍경을 감각의 틈에서 보고 보편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이상향은 반복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여 지각이 발생하는 틈에서 다른 감각으로의 세계를 마주하고자 하는 세계의 전환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몸소 느끼며, 관습적 지각을 해체하며 이상향의 일렁임을 풍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유동적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 철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도시 환경이라는 익숙한 장면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몸을 통해 다시 체험되는 감각의 현장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5) 모리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2, p.34.

6) 모리스 메를로-퐁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남수인 · 최의영 옮김, 동문선, 2004, p.22.

7) 모리스 메를로-퐁티, 위의 책, pp. 317-320.

2. 왜곡된 이미지와 시지각적 인식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접촉하고 감각하며 살아가는데, 그 감각을 통해 실제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둘러싼 세계와 지각 체계는 계속해서 순환하는 고리를 이루면서 서로를 만들어 간다.⁸⁾ 그 가운데 지각 체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시각적인 환경의 자극으로 보는데 사람이 눈을 통해 외부환경을 지각하는 과정을 시지각이라고 한다. 20세기 이후에는 투시도법의 왜곡과 변화를 통하여 공간과 사물에 대한 인식을 시각에서 지각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게 되었다.⁹⁾ 단순히 본다는 것은 어느 대상이 보여진다는 매우 수동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대상을 지각하고 일련의 인지 과정을 거쳐 기억 속에 그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능동적이고 구조화된 과정이다.¹⁰⁾

본인의 시지각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시각적 관점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는 감각의 리듬을 따르는 과정 즉, 감각의 흐름에 따라간다. 본인은 왜곡을 감각의 혼란이나 단순한 시각적 변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현실과의 관계를 새롭게 감각하고 해체하는 인식의 틈으로 이해한다. 반복되는 일상의 현실 속에서 연구자는 왜곡과 균열, 틈새를 통해 잠시 스쳐가는 감각의 순간을 발견하고, 그 순간들을 이상향의 단편으로 느낀다. 이러한 시지각은 세계와의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며, 안과 밖, 물질과 감각 형태와 비형태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동적인 실험으로 확장된다.

8) 실비 쇼크롱·크리스티앙 마랑다즈, 『우리는 어떻게 볼까?』, 김성희 옮김, 믿음인, 2021, p.59.

9) 김세은, 『시지각을 통한 현대회화의 형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p.8.

10) 신동진·채완석, 『시지각적 접근방식에 의한 동서양 가로경관 이미지에 관한 연구 -Cestalt 지각이론을 중심으로-』, 진주전문대학논문집 제19집, 797-837, 1996, p.805.

메트로 폰티의 시지각과 함께 보자면 메트로 폰티는 단순 시각에 의한 자극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보는 자극에 의해 입력되어진 정보들을 경험에 의한 기억들과 연합되어 재해석되는 능력까지를 말하고,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닌 사물의 본질에 관해서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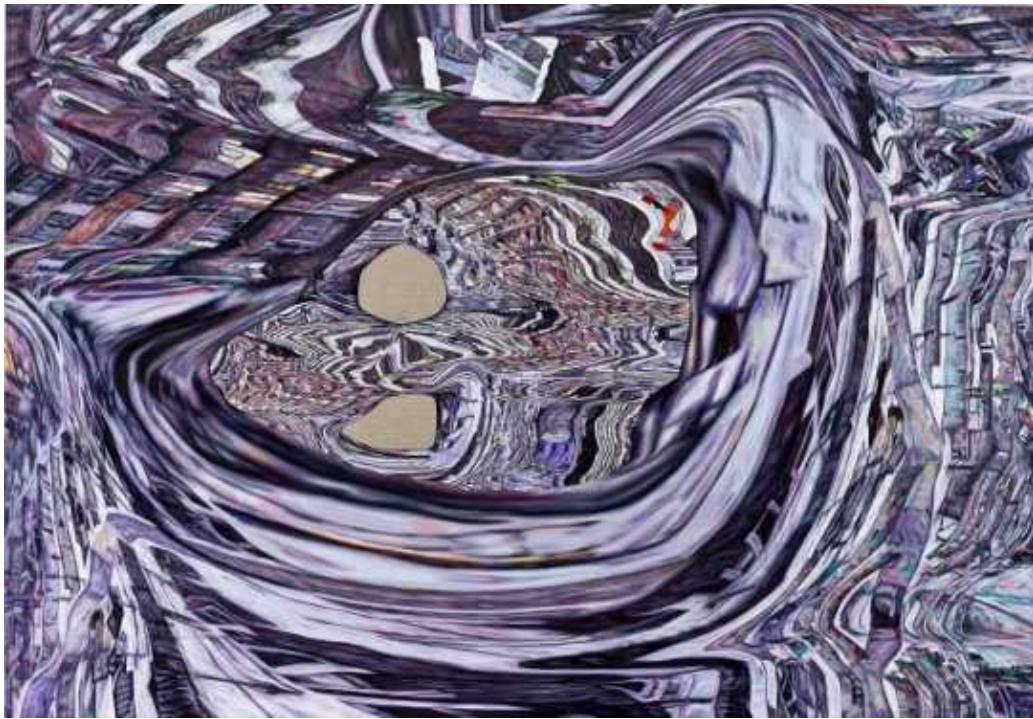
일렁이고 있는 도시 풍광, 소기의 목적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시야에 드러나면서 소기의 목적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건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저마다 사연을 품은 사람들, 그들의 표정, 자동차와 경적소리, 각종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세상을 가득 채우는 소음과 잔상들이 이 소란한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함축하고 있는 본인은 주어진 대상 공간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상을 드러낸다. ‘왜곡’을 단순한 형태 변형이 아니라 감각의 탐구이자 지각적 실천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각 경험을 해체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던 감각의 층위와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본인은 자신의 주관적 경험과 시각적으로 본 것에 대한 관점이 투사되면서, 완벽히 정지된 시공간이란 없다는 자명한 물리학적 진실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¹¹⁾

뜨거운 여름날 보았던 아스팔트 위의 자동차들 사이에서 피어나고 있던 아지랑이 그때의 본인의 눈에서는 주변이 일렁이듯 왜곡상으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러한 것을 지각적으로 경험을 함으로써 몸소 체험한 이미지를 액체와 같은 일렁이는 형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시지각으로 경험하였다. 화가는 자신의 몸을 매개로 하여 세계를 회화로 전환시킨다. 여기서의 경험은 공간 한 조각, 기능 한 묶음으로서의 것이 아닌, 시지각과 감각의 움직임이 뒤얽힌 경험을 말한다.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으로 앞에 펼쳐진 풍경을 형상화하여, 보이는 세계의 지각을 지도 위에 옮긴다.¹²⁾ 시각 영역에서 이미지의 구성

11) 허호정, 『어제와 오늘, 아지랑이의 형상』, 단체전 <3인칭 지구>(2023) 전시 전상희 평문에서 발췌.

은 왜곡된 형상을 만드는 형식, 즉 표면에 연결되어 이미지와 기하학적인 점 (point gemetral)과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¹³⁾ 환기하는 풍경, 과거에 이미 눈을 통해 마음을 매료시켰던 풍경 이 풍경에서는 근경이 원경으로 퍼져 나가고, 원경은 다시 근경으로 아른거리게 만든다. 연구자는 보이는 세계와 경험, 나의 움직임이 투사가 되며 왜곡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제기하며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등 미디어에 의해 그려진 이미지를 해체, 왜곡하고 여러 이미지를 겹쳐서 화면에 표현하고 있는 진마이어슨의 회화를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¹⁴⁾



[도판 03] 진마이어슨, <Tesseract-ual Homesick Blues>,

187×271 cm, 캔버스에 유채, 2016

12) 모리스 메를로 폰티, 『눈과 마음 - 메를로 폰티의 회화론』, 김정아 옮김, 마음산책, 2008, p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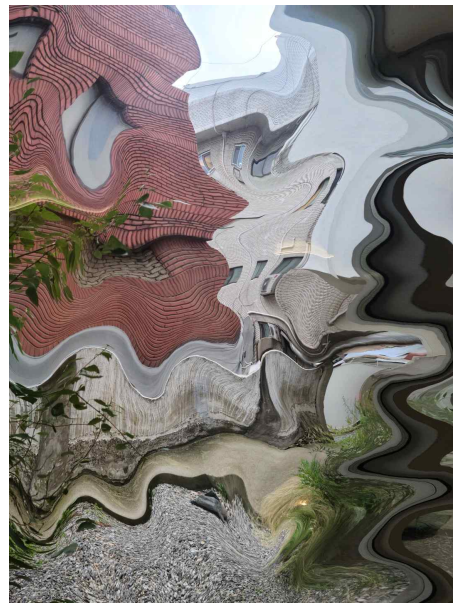
13) 이은진, 『언어 이미지와 형상 왜곡에 관한 연구 - 연구 작품<Vielheit> 연작의 이미지의 형성 의미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pp86-88.

14) 최수영, 학교재 갤러리 보도자료, 진 마이어슨 개인전 - Enfless Frontier, 2013.08.23.

진 마이어슨(Jin Meyerson, b.1972)은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이슈를 폭넓게 아우르는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를 컴퓨터 그래픽, 포토샵, 3D스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왜곡, 반전, 확장과 축소를 반복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왜곡된 이미지를 캔버스에 작업한다. 미디어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자연, 군중, 기계 등의 이미지를 토대로 자기 주변의 풍경을 재해석하여 캔버스에 옮긴다. 15) 진마이어슨의 작품 [도판05] <Tesseract-ual Homesick Blues>를 보게 되면, 뒤틀리고 왜곡된 도시 풍경을 볼 수 있다. 진마이어슨이 바라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의식에 직면하며 그가 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다. 또한 진마이어슨의 삭막한 내면의 풍경이기도 하다. 뉴욕, 파리, 자카르타, 홍콩, 그리고 서울까지, 작가는 설새 없이 반복되는 이 주의 순환을 겪었었다. 그러한 경험들이 서로 뒤엉키고 있는 모습들을 화폭에서 보여주고 있다.



[도판04] <도시풍경 사진2>



[도판05] <재구성된 시각 장면2>

15) 이승자, 『도시공간을 모티브(motif)로 한 유기체적 상징과 추상이미지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인천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pp12-13.



【작품01】 <흔러 흔러 사라지는>,
162.2×13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

연구자의 【작품01】 <흔러 흔러 사라지는>은 [도판 04] <도시풍경 사진2> 연구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도판 05] <재구성된 시각 장면2>와 같이 디지털 작업으로 다시 왜곡 및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그 모습을 화면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닌 다시 재구성하여 옮긴다. 【작품01】 <흔러 흔러 사라지는>의 작품에서는 원래의 풍경이 지니고 있던 흐름을 사진상 기반 위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장지에 옮겼을 때는 선을 의도적으로 늘어뜨리고 휘게 만드는 방식으로 형태를 왜곡하였다. 이는 구상적 재현보다는 형태의 일그러짐을 통해 추상적인 면모를 더욱 강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색채의 선택 또한 작품의 제목인 <흔러 흔러 사라지는>에서 착안하여, 물의 속성과 감각을 연상시키는 차가운 색조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시지각은 풍

경의 본래 이미지를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지각의 전환을 하며 새로운 인식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진마이어슨의 어린 시절 입양이 되면서 느꼈던 정체성의 혼란, 그가 바라보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여러 사진과 TV, 잡지에서 뽑아 군중, 자연, 건물 등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바라보고 경험하였던 현대 사회의 도시풍경을 왜곡상으로 드러내는 것과 연구자의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를 보고 정지되는 이미지는 없다고 느끼며, 액체와 같은 일렁임으로 왜곡상을 드러내는 것은 각자가 느끼는 지각의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낸다. 그러한 왜곡 속에서 서로는 비슷한 지점에 서게 된다. 이처럼 연구자는 지각 주체의 시선을 고정된 공간이 아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이하는 도시풍경을 경험한다. 이 풍경은 지각의 과정에서 해체되고 왜곡된 이미지로 형성되며, 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유동하는 감각적 구성물로, 지각적 경험 안에서 지속적으로 재형성된다.

Ⅲ. 도시 환경의 체험과 시간성

공간과 시간, 그리고 경험은 주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도시 환경은 단순히 외형적 구조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기억, 역사, 감정이 스며든 총체적 풍경이다. 현대도시는 근대도시로부터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도시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에서의 시간 체험, 도시인들은 도시에서 시간이나 세월의 흐름을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일상을 살아간다. 시간의 지각은 공간의 지각과 더불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한다.¹⁶⁾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환경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시간의 흐름과 마주하게 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매 순간 주변의 상황과 현상에 주목하며, 시선을 그 위에 머물게 된다. 이때 주변의 상황은 고정된 시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왜곡되고 해체되어 마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형상으로 연구자에게 다가온다.

연구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각적 경험을 통해 도시를 인식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외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너머의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을 포함하고자 한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연구자는 그 순간 순간의 체험으로 지각을 포착한다. 그리고 본래의 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에서 희미해지면서 본래의 색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색채의 유동성과 지각적 경험을 본인의 시선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도시 환경에 대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자 한다.

16) 김철수, 『도시공간의 이해』, 기문당, 2001, Epub, p.22.

1. 도시 환경의 장소감

도시는 문명이 모이거나 쌓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형체이며, 문화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그곳에서 생존해 나가는 사람들을 주체로 생각했을 때, 이를 ‘도시환경’이라고 한다.¹⁷⁾ 오늘날 도시의 모습은 유동적이면서 실용적인 도시의 모습에 가까이 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중심과 주변의 구분의 경계가 흐려지고 그 결과 도시는 점점 더 많은 부분으로 파편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¹⁸⁾ 도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은 변화하는 시간과 공간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역동성과 사회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도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그것에 맞는 대응 즉 도시공간의 개발·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무질서한 확산을 만들어냈다.

프랑스의 비평가이자 시인인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가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들레르는 매 순간 변화하는 도시의 일상 가운데 순간적 시선 교환이라는 새로운 경험에 주목한다. 도시의 낮샘과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체험의 우연성과 의식하지 못한 존재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거리 산책자 유형을 완성시켰다.¹⁹⁾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도시를 읽는다. 이것은 환경의 경험적 이해, 즉 마음으로 읽는 도시이기도 하다. 경험적으로 읽는 거리는 방향을 지도나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발이 저절로 찾아가는 것과 같이 직감 혹은 느낌으로 읽는 장소감(sense of place)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²⁰⁾

도시 환경에서의 체험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감각의 차원에 머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익숙한 거리, 반복되는 장면,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

17) 김철수, 위의 책, p.199.

18) 앙리 르페브르, 『리듬 분석』, 정기현 옮김, 갈무리, 1994, pp.173-175

19) 윤미애, 발터 벤야민과 도시산책자의 사유, 문학동네, 2020, pp.221-222.

20) 김철수, 위의 책, p.69.

은 자칫 무의식적으로 지나치기 쉽지만, 이 일상의 순간을 다시 바라보고 재구성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하나의 내면적 공간이 된다. 연구자가 바라본 도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풍경들로 가득하며,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감각을 시각적으로 경험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풍경 연구자는 이러한 도시적 체험을 단순히 기억하거나 재현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도시의 현실과 일상적 장면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내적 갈망을 기반으로, 그 체험을 ‘이상화된 감각’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는 도시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현실의 층위를 변형하고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감각적 지평을 열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날 문득 연구자가 돌아본 세상은 반복되는 형상들의 반복이었다. 그것에 연구자는 갑갑함을 느꼈다. 즉 연구자는 도시적 경험을 통해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각적 가능성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현실을 초월하는 이상화된 감각적 체험을 구현하고자 한다. 도시공간은 사람이 어떠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징성을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미 공간이라는 점에서 도시의 모든 부분은 장소적 개념도 가지고 있다.²¹⁾ 그것을 체험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감각적으로 재조정하고, 그 속에 잠재된 감각적 가치로 보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일상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며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현실을 벗어나려는 것이며, 그 속에서 이상향을 바라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일상의 틈에서 떠오르는 감각의 단서들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를 다시 보게 하는 지각적 실험이며, 이 실험을 통해 현실 속에서 이상향의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지각의 흐름에 주목하며, 도시를 지각의 틈을 만들어내는 감각적·지각적 대상으로서 본다. 도시를 단순히 외부 세계의 물리적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감각과 정서가 개입된 주관적 경험의

21) 김철수, 위의 책, p.18.

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도시의 지각 틈새를 통해 반복되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과 이상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2. 도시 환경의 주관화된 형상과 색채

도시의 풍경은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매 순간 다르게 다가오는 감각의 중첩이며, 이러한 지각적 경험은 연구자의 내면적 해석과 결합되어 독자적인 형상과 색채로 나타낸다. 도시 환경을 단순히 건물과 길, 구조물로 이루어진 고정된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라는 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감각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아침과 저녁의 빛, 계절에 따른 색의 변화, 사람들의 움직임과 소음, 날씨에 따른 공기의 흐름까지도 이 모든 요소들이 도시풍경을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이미지로 만든다. 연구자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도시의 모습은 늘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으며, 왜곡되고, 일렁임을 가지고 다가온다. 이런 왜곡은 단순한 시각적 변형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들에 대한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 감각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작품02】 <그때의 우리는>, 90.9×72.7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4ea)

위 【작품02】 <그때의 우리는>에서 보면 연구자가 주목하는 색채의 변화와 재해석, 형상의 왜곡은 단순히 시각적 외형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색채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지각 흐름 속에서 일어난 정신적 반응과 감정을 담아내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도시환경을 그대로의 보존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모르는 유동적인 형상으로 보고 있다. 작품에 제목과 같이 그때의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는 색을 선정한다. 햇살이 좋았고, 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때의 날이다. 그때의 느낌을 가지고 채도가 높은 색으로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 색채는 감각의 매개로서 심리적 울림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해 외형적인 재현을 넘어선 심층적인 경험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관점은 바실리 칸딘스키가 주장한 색채의 ‘내적 정신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918-1921)에 따르면, 색은 단순한 시각적 정보가 아닌 인간의 정신과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면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색채를 매개체로 하여 단순한 외형의 변형을 넘어, 지각 속에서 드러나는 정신적 반응과 정서적 층위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색채를 통해 경험되는 도시풍경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도시 환경은 본인에게 하나의 물리적 배경이 아니라, 감각과 지각 사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를 생성해내는 살아 있는 형상이다. 물리적 변화와 다양한 가시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시각은 이를 감지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우리는 눈을 통해 변화하는 빛과 색을 감지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인식한다. 시각은 색에 인간과 세계 사이의 매개적인 단계를 부여하였다. 이 단계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외적이며 객관적인 요소로 색=빛은 우리들의 눈이 물리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내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로 회화를 통해 가시적인 영역을 조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²²⁾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점차 예술가들은 그들의 재료에 주로 관심을 두어 연구하고 있으며, 그들의 예술을 창조하기에 적합한 요소들인 내면적 가치를 정신적으로 깊이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회화는 수학과 리듬적이며 추상적인 구성을 추구하며, 색채가 움직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색음(色陰)과 색의 종류 반복성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²³⁾ 색채는 살아 있는 본질이다. 색채는 기쁨·만족·안정, 또한 자극을 전달할 수 있고, 색채는 심적(心的)인 효과와 경험적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색채는 인간의 영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단이며, 색채는 촉각이며, 연장의 눈이다.²⁴⁾ 그에 따른 색의 연상도 하는데, 색에 대한 연상은 개인의 경험과 경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성별, 나이, 성격, 직업, 생활 환경, 교양 등 개인적 요인은 물론, 지역, 풍토, 민족성, 문화적 배경,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풍경들의 환경색채는 인간에게 관계되는 환경을 환경 색채의 의미로 인간에게 심리적·물리적인 영향을 부여한다.²⁵⁾ 색은 인간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이를 통해 시각과 감각 모두에게 본질을 드러낸다. 그로 인해 색은 윤리적이며 동시에 미학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우리의 시각계는 각기 다른 빛에 변화무쌍한 가시 조건에 적응을 하며, 색에 대한 주관적 시각의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다르게 나타난다. 시각의 구조는 사람의 초기 삶의 단계부터 형성되며 시간과 함께 만들어지며, 그중에서도 색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것으로 구분해낸다.²⁶⁾

연구자는 본래의 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느꼈던 그 순간의 상황, 날씨 경험을 토대로 도시 환경에 대한 감각적 시각과 기억에 기반한다. 【작품03】 <잠시만 머무를 뿐이에요>를 봐보자면 연구자는 기억과 다

22) 길라 발라스, 『현대미술과 색채』, 한택수 옮김, 궁리, 2002, p.45.

23) 바실리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옮김, 열화당, 2019, pp.52-53

24) 바실리 칸딘스키, 『점, 선, 면』, 차봉희 옮김, 열화당, 2019, p.190.

25) 정은주, 『색채심리』, 학지사, 2015, p.170.

26) 길라 발라스, 위의 책, pp.42-44.

르게 변한 풍경의 반복적인 형상들이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색채를 채도를 낮춰서 작업을 진행하며, 도시의 무기력한 정서 즉 무채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연구자가 살아가는 현재진행의 풍경과 사람들이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채도를 높여 현장감이 더욱이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표현하고 있다. 연구자가 풍경을 보았던 시간대의 해가 지기 직전의 하늘이 가장 붉게 변하고 있던 순간을 기억하며 그때의 색감을 화면에 옮긴다. 햇빛의 색이 풍경을 비추었던 색감이 강렬하였기에 높은 채도의 색감으로 표현한다.



【작품03】 잠시만 머무를 뿐이에요, 325.5×150cm, 장지에 혼합재료, 2023

대상의 외형에 대한 집착을 넘어, 예술가는 자신의 직관적 정신과 감정을 바탕으로 한 내적 정신성을 통해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칸딘스키, [도판 06] 칸딘스키의 <여러 개의 원>에서는 기하학적 요소를 통해 정신적인 감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크기와 색채의 조합을 통해 서로 다른 에너지와 감정을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는 ‘형태와 색채의 감정적 표현’이라는 그의 철학을 잘 드러낸다. 겹치고 교차하는 원들과 색채의 대비는 화면에 리듬감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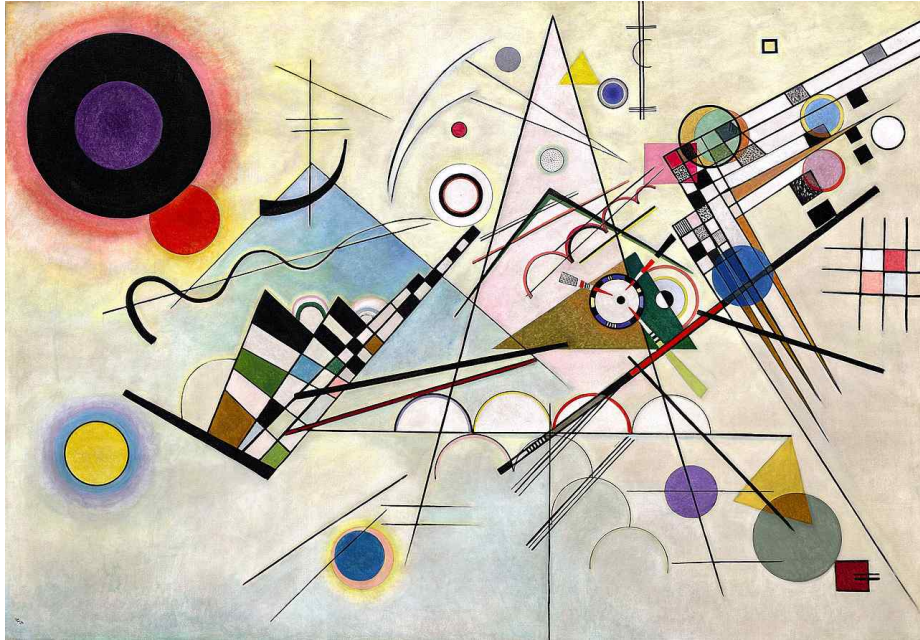


[도판06] 바실리 칸딘스키, <여러 개의 원>, 140.7×140.3cm, 캔버스에 유채, 1926, 구겐하임 미술관

칸딘스키의 색채론은 내적 경험(감정)에 근거한 내적 필연성이 이론의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회화의 형식(색과 형태)조차도 ‘비가시적인 것은 내면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색채의 내포된 상징적-심리적·신비적 의미에 주목하였으며, 그의 예술 이론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내적 정신성’의 표현에 있으며, 이는 색채의 언어를 통해 해석되고 드러난다.²⁷⁾ 가시적인 빛 아래 감춰져 있던 색들만의 고유한 정서적 색조(tonallite)와 내적 울림을 분석해낸다.²⁸⁾

27) 바실리 칸딘스키, 『점, 선, 면』, 차봉희 옮김, 열화당, 2019, p.417.

28) 길라 발라스, 위의 책, p.399.



[도판07] 바실리 칸딘스키, <구성 8>, 140.3×200.7cm, 캔버스에 유채, 1866-1944, 구겐하임 미술관

[도판07] 바실리 칸딘스키 <구성 8>의 작품을 보게 되면, 이 작품은 칸딘스키가 기하학적인 형태와 색채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음악적 리듬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색과 형태가 소리나 음악처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으며, 다양한 기하학적 요소를 활용해 시각적 리듬을 형성하고, 색채를 통해 공감각적 경험을 유도하였다. 각 요소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은 음악적인 감각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낸다. 그는 ‘내면의 소리’를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음표와 같은 시각적 리듬을 형성하였다. 칸딘스키의 주된 원칙은 내적 진정성을 표현하는 데 있으며, 이때 내적 정신성은 이론의 규칙에 따라 색채의 언어를 통해 해석된다. 모든 외적 형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형태는 고유한 내적 내용을 지닌다.

즉, 형태란 내적 내용이 외적으로 발현된 것이다. 이는 형태의 ‘내적 표지’로 이해될 수 있으며, 형태의 조화는 인간의 영혼을 목적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법칙에 근거한다. 이러한 원리는 칸딘스키가 말하는 ‘내적 필연성’의 원칙으로 일컬어진다. 예술가는 인간의 영혼에 진동을 일으키기 위해 색이라는 건반을 두드리는 연주자와 같다. 따라서 색의 조화는 인간의 영혼을 목적에 맞게 움직이게 하는 법칙에 따라야 하며, 이는 ‘내적 정신성’의 원칙을 드러낸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본래 지니고 있던 색을 점차 상실하거나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칸딘스키는 기하학적으로 형태를 담아내지만, 연구자는 흐르는 듯한 형태로 나타낸다.

우리가 특정한 장소나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색의 기억은 점차 흐려지고, 결국 그 자리에 있었던 것들의 원래 색은 명확하게 회상되지 않는다. 이는 색이 고정된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지각의 조건, 감정의 상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성질을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래의 색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각적 인상과 변화된 색채가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색채의 유동성과 변화를 단지 시각적 현상으로 환원하지 않고, 시간성과 기억, 정서가 교차하는 지각의 층위로 해석하는 것은 색을 감각의 차원을 넘어 정신적·심리적인 차원에서 사유하게 된다.

연구자의 작품에서 색을 재해석한다는 것은 본래 색의 재현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색과 형태들이 어우러지는 감각적 장면을 포착하고, 그 일렁임 속에서 감각의 진동과 지각의 흔들림을 시각화하는 일이다. 이때 색은 더 이상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가 되며, 시각적 진동을 통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여는 통로가 된다. 이는 칸딘스키의 색채론 색채를 단순한 외적 속성이 아닌, 인간의 정신성과 감정을 진동시키는 내면적 힘으로 보았다. 그는

색과 형태가 사람의 영혼에 목적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법칙, 즉 ‘내적 필연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색은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상징적 도구로 작용한다. 연구자의 색채 변화와 색의 재해석은 단지 시각적 외형의 변형이 아니라, 지각의 흐름 속에서 감정과 정신의 반응을 포착하는 시도이며, 이는 칸딘스키가 강조한 색채의 내적 정신성과 맞닿아 있다. 색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떠오르고 사라지며, 감정과 기억에 반응하는 유동적인 감각의 언어이다.

IV. 왜곡된 풍경으로 찾은 이상향의 표현연구

도시는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마다 다르게 보이며, 기억과 감각이 더해지면서 각기 다른 의미들로 다가온다. 연구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어느 날 마주한 것이 정지된 시공간이 아닌, 끊임없이 일렁이며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형상들이었음을 인식한다. 정지된 형태를 해체하고 왜곡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주변의 상황과 형상들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왜곡하고 해체한다. 이러한 기법 데포르마시옹 기법과 겹겹이 쌓아 올리는 레이어링 기법을 사용하여 화면으로 옮긴다.

연구자가 바라보는 시지각에서 어떤 형상의 왜곡으로 보고 있는지를 형상을 어떤 규칙으로 변형을 시키는지를 분석해보며 이는 이상향을 향한 시선 속에서 시간의 일렁임을 시각화하려는 시도이다. 연구자가 그리는 이상향은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 반복되는 형상들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현실에서의 도피 욕구를 들어내고자 함이다. 어떠한 장소나 대상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기억 속에서도 왜곡되며, 과거와 현재, 미래가 교차하는 일렁이는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왜곡된 선의 흐름과 반복

연구자의 시선은 매 순간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변의 상황과 현상에 시선이 머문다. 그러한 주변 상황들을 정지된 시공간이 아닌 왜곡과 해체를 통하여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형상들로

만든다. 왜곡하는 과정에서 흔들림, 잔상, 곡선의 변화 등으로 표현한다. 곡선으로 휘어진 도시 건물의 윤곽은 실제의 구조를 벗어나지만, 그것은 도시를 살아가는 감각의 흔들림과 감정의 곡선을 시각화한 것이다. 시간의 파편들을 어떻게 현재의 시야에 보이는지를 표현한다. 왜곡상으로 보며 사진 찍힌 공간 이미지를 다시 해체하여 정지된 이미지를 액체와 같은 왜곡된 형태로 재구성해 배열한다. 곡선, 흐트러진 선들은 연구자가 느끼는 앞으로 어떤 형상으로 변화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자는 반복되는 상황 형상들의 반복되는 현실의 감각을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변형한다. 그것을 시각화하며, 반복은 일상의 억눌림으로 드러낸다. 도시풍경과 인물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포착한 후 이를 디지털적으로 해체하고 흐트러뜨리는 과정은 단지 시각적 변형이 아닌, 내면적 불안, 그리고 감각적 해방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익숙한 형태를 인지하는 대신에 새롭고 유동적인 감각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왜곡은 단순한 시각적 충격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본래의 지각 틀을 흔들고 그 사이에 새로운 인식의 틈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이다.

【도판 08】 흔적의 중첩을 통한 감각적 시간성 표현연구>를 보게 되면 연구자는 왜곡된 형상을 화면에 그리기 전에 먼저 배경 작업부터 시작한다. 이는 물감을 화면 위에 흘려보내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물감이 흐른 흔적과 자국은 마치 시간이 지나간 흔적처럼 보이며, 시간의 흐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물감을 계속해서 겹겹이 덧입힐수록, 이미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 지나갈 시간이 화면 위에 함께 존재하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낸다. 배경의 물감들을 떨어트리기 전 연구자는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감재인 바니쉬를 화면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 물감에 만들어 5번 정도의 칠을 반복한다. 그런 이후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배경에 물감을 층층이 쌓으며 밑으로 흐르는 물줄기들이 어느 순간 흐르다가 고정된 상태에서 멈추고 스며들고를

반복한다. 그러한 것들은 그 상태로 스며든다. 이러한 표현을 의도한 이유는 시간의 멈춤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흔적들은 화면 위에 층층이 중첩되어 축적된다. 이렇게 레이어링 기법(Layering)을 이용하여 반복적 행위를 통해 시간의 누적과 감각적 흔적이 시각화된다.



[도판08] <흔적의 중첩을 통한 감각적 시간성 표현연구>
(레이어링 기법을 이용한 표현연구)

이후 연구자는 왜곡된 형상을 스케치하여 화면에 옮기고, 물이 닿지 않은 영역은 색면으로 채워 넣는다. 이 과정을 통해 화면은 물성과 시간, 왜곡된 시각이 동시에 드러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것은 물질의 흐름이 남긴 흔적에 관한 조형적 탐구를 한 것이다. 물의 흔적은 소멸된 시간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작가의 감정 표현, 조형적인 의도의 강조, 양식화 또는 풍자적인 과장을 위해 사물의 자연 형태에 주관적인 왜곡을 가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포르마시옹 기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낸다. ‘데포르마시옹(Deformation)’은 왜곡, 변형, 기형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자연적인 형태의 사실적 묘사에서 벗어나 대상의 형태를 시간적으로 강조하거나 변형하여 표현하는 미술 기법을 지칭하여 ‘데포르메(Deformer)’로 불리기도 한다. 근대 이후 자연주의에서 인상주의에의 유형 전개, 또는 표현주의, 일부의 포비즘·구성주의·입체주의·초현실주의 등 사실에 기반한 모든 유형 대립이 여기에 나타나며, 데포르마시옹의 다양한 기법이 뚜렷해지게 되었다.²⁹⁾

시각 예술의 데포르마시옹은 표현기법과 조형성을 중심으로 과장, 단순화, 왜곡, 가상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³⁰⁾ 데포르마시옹 기법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에 의해 개척되었고, 이들은 대상의 고유 형태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해 왜곡하면서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상상력과 흥미를 유발하며 시각적 자극을 일으켰다. 의도적으로 조합하고 해체시키며 유연한 표현성을 보여준다. 현대 시각 예술에 나타나는 데포르마시옹은 회화는 하나의 순간, 하나의 시점에서 포착된 자연의 묘사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 내면의 자유로운 표출과 무의식, 자유로운 사고를 중시하는 작가들의 공통된 예술적 사유가 드러나는 수단이다. 이는 다양한 작가들의 실험적 경향과 의도에 따라

29) 두산백과, 데포르마시옹,

https://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WT.ac=search

30) 윤영범, 『사진, 회화, 그래픽 디자인의 이미지 구성과 데포르마시옹 3』,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Epub, p.14.

각기 다른 양식으로 표현된다.³¹⁾



【작품04】 <변화에 변화1>, 162.2×130.3cm, 장지에 채색, 2022

【작품05】 <변화에 변화2>, 162.2×130.3cm, 장지에 채색, 2022

【작품06】 <변화에 변화3>, 162.2×130.3cm, 장지에 채색, 2022

지금의 작업이 있기까지의 첫 시작이었던 【작품04】 <변화에 변화1>, 【작품05】 <변화에 변화2>, 【작품06】 <변화에 변화3> 위의 작품들은 데포르마시옹기법과 우연적인 효과의 마블링기법을 이용하여 본인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다. 위 작업들은 2022년도에 연구자가 겪었던 큰 사건들의 형상들과 주변 상황들의 변화 감정들을 기반으로 한 작업이다. 이때의 본인이 겪었던 사건들은 엄청난 큰 상처였기에 숨기고자 함, 숨고자 함이 더 컸다. 그리하여 형상들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함보다 일부러 더욱이 왜곡시키고 왜곡된 선들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마블링기법을 도입시키며 일렁이는 물줄기들을 이중삼중으로 만들며 그때 느꼈던 감정이 일렁이듯 사무치고 있는 형상에 숨기는 것은 엄폐

31) 윤영범, 위의 책, p.16.

로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그때의 주변 형상들을 본인만이 알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며 우연과 우연의 사이에 작용하는 변화들에 주목하며 일렁이는 시각적 효과를 표현했다. 시간의 흐름을 물처럼 유동적인 감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차가운 색채를 사용하였다.

자신의 내면에 더욱이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던 그 순간이 흐르고, 매 순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본인의 주변의 상황과 현상들에 맞추어지며 연구자의 인식 속에 있던 모습은 없어지고 그들도 그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지 모르는 이 상황들이 아지랑이 현상으로 다가왔다.



【작품07】 <누군가는 어디로>, 130.3×80.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3



【작품08】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72.7×60.6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 (8ea)

【작품07】 <누군가는 어디로>는 연구자가 카페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의 감정을 기억하며, 건물 안의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여닫이 형태의 창문 모양 화판 위에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장소는 성수의 거리로, 건물들의 외형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안에서 열리는 팝업 행사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모습과 색깔로 공간을 바꾸어 놓는다. 그런 거리 속에서 연구자가 마주한 것은 수많은 사연을 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울리는 자동차 경적소리 등 일상적인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풍경을 이루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은 영원하지 않기에, 그들의 시간 역시 흐르고 있으며, 연구자는 이러한 유동적인 시지각의 경험을 왜곡된 형상으로 담아내었다.

위의 【작품08】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는 석사학위 청구전시의 전시 명이기도 하다.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이상향을 응시하는 동시에, 영원할 줄 알았던 순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장면을 마

주하며 느꼈던 시각의 일렁임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사라져버린 순간들에 대한 감각적 흔들림을 통해, 변화와 소멸 속에서 포착되는 감정의 파편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09】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다른 곳을 가는> 작품은 도시를 거닐다 문득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각자가 전혀 다른 삶의 궤도와 시각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본인의 작업에서 형상의 왜곡으로 보여주며, 연구자는 벽돌로 만들어진 건축물들 즉 고정관념의 시각적 은유로 기능하는 건축물의 견고한 형태를 해체하고 왜곡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동시에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서 여러 선들이 뒤엉켜 있는 전봇대의 줄들 직선으로 뻗어 있는 것이 아닌 곡선의 형태를 보여주며 마치 악보의 오선보처럼 보였다. 직각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건축물들을 위의 오선보처럼 보이는 전봇대 줄과 같이 유기적이고 리듬감 있는 곡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적 리듬을 구성하고 있다.



【작품09】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다른 곳을 가는>, 162×6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5

이처럼 왜곡된 선의 흐름과 반복은 연구자가 일상 속에서 마주한 주변 상황의 미세한 변화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비롯된 지각의 전환에서 출발한다. 이는 앞으로 어떤 형상으로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상황들을 시각화한 것으로, 그 불안정한 감각을 ‘아지랑이’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틈은 이상향의 이미지를 고정된 공간 안에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지각의 순간 속에서 출현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곧 왜곡된 형상은 반복되는 현실의 감각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이상향을 감각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한다.

2. 형상의 왜곡을 위한 데포르마시옹 기법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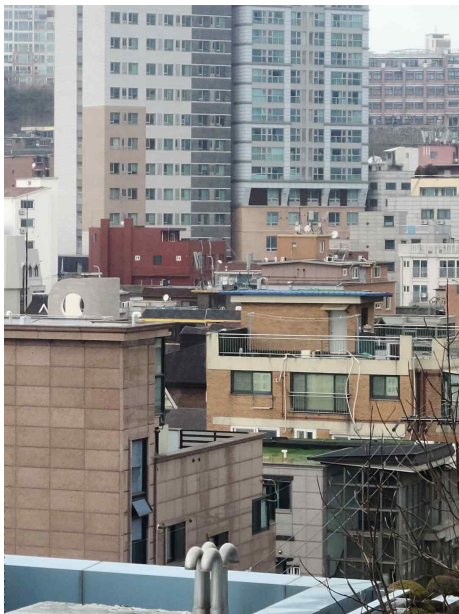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자의 작업은 연구자가 몸소 느낀 경험을 정지된 시공간 사진으로 찍어 그것을 기반으로 한 도시풍경 및 인물 이미지의 형상에 대한 왜곡과 해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형상 변형은 단순한 시각적 충격이나 추상화의 수단이 아니라, 지각의 틈을 형성하고 그 틈 안에서 새로운 인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즉 반복되는 주변 상황, 형상들이 일그러지고 흐려지며, 그 경계가 불분명해짐으로써 감각을 흔들고, 고정된 인식 구조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지각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형상의 변형은 단순한 시각적 일그러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인식의 리듬을 깨려는 감각적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인의 작업에 나타난 형상의 변형 방식을 분석하고, 그 안에 형식 속의 규칙성과 의미 구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형상 변형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선적인 구조를 곡선으로 대체함으로써 경직된 공간 구조를 유연하게 재구성하고, 둘째, 색채를 분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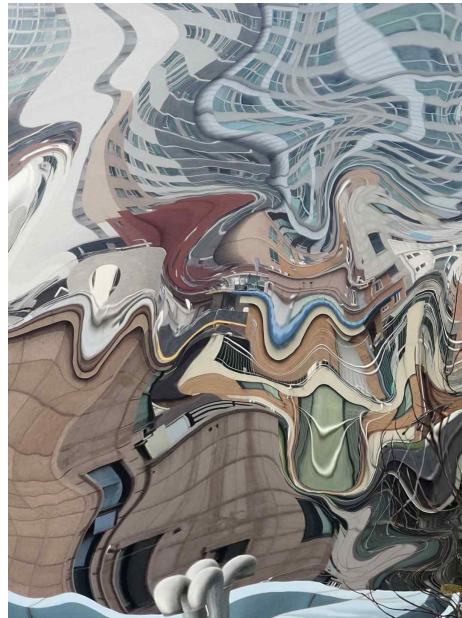
키거나 색을 원색으로 쓰지 않고 채도를 낮춰 표현하며 시각적 경계와 구분을 흐리게 만든다. 셋째, 동일한 형상을 반복하거나 중첩하여 시간의 흐름과 감각의 중첩을 시각적으로 환기시킨다. 이러한 작업들은 무작위적 왜곡이 아닌, 나름의 조형 원칙과 내면 감각의 흐름을 기준으로 한 조형 체계 내에서 수행된다.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여 같은 이미지를 시간적 거리를 두고 촬영하여, 그때 느꼈던 감각적 색채로 표현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반복된 형상에 차이를 부여한다. 또한, 감각의 흐름에 따라 선과 색의 움직임이 구성되며, 이는 시간의 흐름 혹은 감정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시점에서 본 형상이 아니라, 다중의 시점과 감각이 혼합된 인식의 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지각의 순간들이 겹쳐진 시공간의 혼성 구조를 시각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연구자는 감정 표현, 조형적인 의도의 강조, 양식화 또는 풍자적인 과장을 위해 사물의 자연 형태에 주관적인 왜곡을 가하는 표현 방법인 데포르마시옹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자의 반복적인 형상에서 반복적인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



[도판 09] <도시풍경 사진3>



[도판 10] <재구성된 시각 장면3>

는 정서를 담아 건축물들을 왜곡하여 표현한다.



[도판 11] <도시풍경 사진4>



[도판 12] <재구성된 시각 장면4>

[도판 09] <도시풍경 사진 3>, [도판 10] <재구성된 시각 장면3>, [도판 11] <도시풍경 사진 4>, [도판 12] <재구성된 시각 장면4>을 보게 되면, 연구자의 작업은 도시풍경과 인물의 사진을 기초로 시작된다. 이들은 연구자가 지각을 경험 후 그때의 순간을 촬영하고 그 후 왜곡과 해체를 거쳐 재조합한다. 왜곡과 해체를 하는 작업은 단순한 분해가 아니라 지각의 중심을 해체하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직선적인 선은 유동적인 곡선으로 변화시킨다. 곡선은 고정된 의미를 해체시키고, 보는 이로 하여금 반복되는 현상 속에서 새로운 지각의 순간의 경험 시작을 나타낸 것이다. 정지된 시공간이 아닌 이러한 과정을 해나가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반복되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지각을 경험하고자 하는 지각적 이탈이다. 이러한 곡선의 비틀림은 연구자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순간들과 연구자 자신의 모습에서의 방향 상실에 대한 감정을 시각화 한 것이다.

연구자는 형상을 변형시키는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이탈, 두 번째는 흐름, 세 번째는 중첩이다. ‘이탈’에서는 일정한 리듬이나 구조를

의도적으로 깨뜨려 시각적 긴장을 유발하고, 그 틈에서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자 하였고, ‘흐름’에서는 형상이 단단히 멈춰 있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정해진 형태로 수렴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오히려 형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변화하는 연속적인 흐름 속에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들을 똑바로 경직되게 그리기보다는 느슨하게 늘어뜨리거나 부드럽게 휘어지게 하여, 선 자체가 흐르는 움직임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는 마치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서로 얽히고 겹쳐 흐르듯,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형상들을 표현하려는 시도이다. 색채 역시 단일하고 고정된 색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서로 스며들고 번지며, 때로는 겹쳐지고 때로는 희미하게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나타냈다. 선명함과 번짐, 고정된 색과 흐릿한 색이 한 화면 안에서 공존함으로써, 정지된 이미지를 넘어서 시간과 움직임, 변화의 감각을 담고자 하였다. ‘중첩’에서는 이러한 흐름 위에 또 다른 층위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여러 개의 선과 색을 반복적으로 겹쳐 올리면서 시간이 축적된 흔적과 지각의 겹들이 공존하는 장을 만들고자 했다. 배경과 형상의 색들을 겹겹이 쌓아 올리며, 색과 선이 서로 스며들고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고정된 시점이나 단일한 실재를 넘어서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지각의 장을 형성하려 했다. 이 중첩은 여러 감각의 파편들이 연구자의 혼란스러움, 현실도피 욕구, 불확정성 등의 감정들이 서로 얽히고 충돌하며 하나의 풍경을 이루는 것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단일하고 절대적인 관점을 넘어선다. 이는 다층적인 인식과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연구자의 이러한 작업은 반복되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에서의 또다른 새로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복됨과 막혀있는 도시 질서의 해체를 하여 정해지지 않은 형상, 즉 자유로운 곡선들이 리듬감을 형성하며 왜곡형상을 보여주며 주체의 심리적 해방감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도판13] <도시풍경 사진5>



[도판14] <재구성된 시각 장면5>



【작품10】 <그림에도 불구하고>, 162×65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

【작품10】 <그림에도 불구하고>는 [도판13] <도시풍경 사진5> 연구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도판14] <재구성된 시각 장면5>와 같이 디지털 작업으로 다시 왜곡 및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그 모습을 화면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닌 다시 재구성하여 옮긴다. 본 작품에서는 연구자는 자동차들의 앞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진행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표현하고 싶었다. 연구자는 그 자리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닌 달리고 있는 차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에서 본 모습은 영원히 그 자리에 멈춰 있을 것 같지만 그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을 하지 않는 이상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갈 뒷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차들 뒤로 보이는 건물들의 모습은 저 멀찍이 보이지만 화폭에 옮겼을 때는 더 크게 부각 시키며 일그러진 공간의 비례가 동일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 화면에 빈 공간이 없게 꽉 찬 화면을 연출하였다. 그 이유는 정신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느꼈던 연구자의 숨이 막힐 정도의 답답함을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서 시도되는 형상 왜곡은 단순한 조형적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반복되고 고정된 현실 질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감각적 실험으로서, 이상향을 향한 시각적·지각적 탐색의 일부이다. 왜곡된 형상은 현실의 인식 구조를 해체함으로써 또 다른 현실의 가능성을 사유하게 하는 매체가 된다. 이때 이상향은 물리적 공간에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지각의 변화가 발생하는 순간의 틈에 비로소 출현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형상 변형은 왜곡과 해체를 함으로써 연구자의 반복되는 현실에서의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욕구를 드러낸다. 이는 일령이며 본래의 모습이 없어지는 소멸된 시간, 앞으로 무슨 형상으로 변화할지 모름을 나타낸다. 소멸된 시간의 모습의 색 또한 없어졌으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하여 표현하려 하였다.

3. 반복과 시간에 따른 패턴과 색의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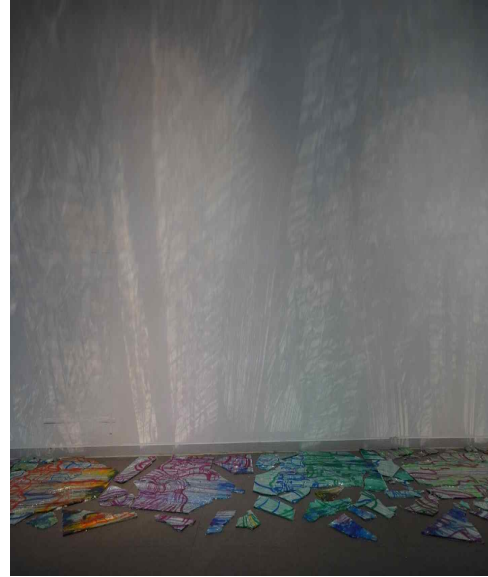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눈을 통해 변화하는 빛과 색을 감지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인식한다. 색은 인간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 인상을 통해 시각과 감각 모두에 어떠한 본질을 드러낸다. 우리의 시각 체계는 변화무쌍한 빛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색은 사람들 서로에게 다르게 표현되고 다르게 느껴진다. 연구자가 다루고 있는 색채의 재해석과 변화는 단순한 시각적 외형의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각의 흐름 속에서 감정과 기억에 반응하는 유동적인 감각의 언어이다. 연구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의 인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풍경의 패턴들과 그에 잠재된 고유한 색채 패턴을 재해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연구자의 작업은 반복되는 시공간 속에서 감지되는 색채와 형상의 변화를 통해 지각의 흐름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감각적 반응을 시각적으로 탐구한다. 무엇보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빛과 색, 그리고 그로 인해 형성되는 시각적 패턴은 단순한 물리적 반복이 아닌, 지각의 층위에서 재구성되는 변화의 양상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반복은 같은 반복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세하게 변형되는 감각적 경험의 축적이며, 색채 역시 고정된 의미를 지닌 기호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 내면의 상태에 반응하는 유동적인 감각의 언어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몸소 경험하였던, 경험하고 있는 도시풍경 혹은 일상적 장면에서 갖는 고유한 색채와 구조적 패턴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변화와 반복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풍경의 재해석은 표면적 형태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 감각과 지각의 틈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진동과 정신적 움직임을 포착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반복은 지각적 실험이자 변화하는 감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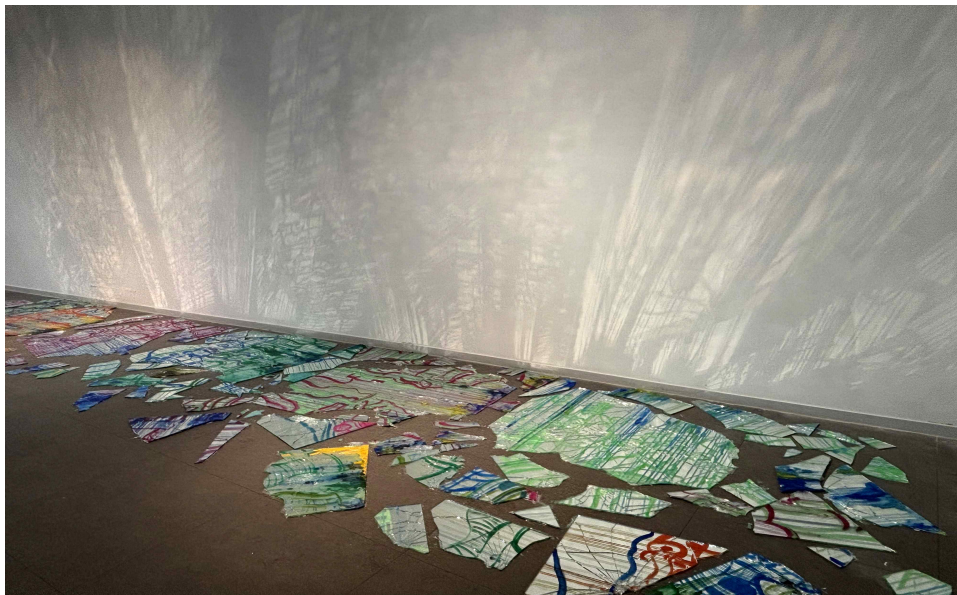
층위를 드러내는 방법론으로 작동하며, 고정되지 않은 이상향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도판 15] <홀러 홀러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2024, 디테일컷1



[도판 16] <홀러 홀러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2024, 디테일컷2



【작품11】 <홀러 홀러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100×100,
거울에 혼합재료 가변설치, 2024 (6ea)

【작품11】 <홀러 홀러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는 시간 속에서 소실되고 있는 기억, 지나간 시간의 파편들,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축적되는 경험들을 ‘깨진 거울의 조각’이라는 시각적 메타포를 통해 형상화한다. 이 조각들은 단순한 파편이 아니다. 거울 조각 위에 빛을 투사함으로써, 반사와 굴절을 통해 하얀 벽면 위에 유기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생성하며, 이는 시각적으로 또 다른 형상을 구성한다. 이 모습은 마치 숲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자연의 움직임처럼 생명력 있는 리듬과 흐름을 담고 있으며, 시간과 기억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위 작품은 하나의 고착된 기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지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본 작업은 반복되는 일상과 고정되고 순차적인 시간적 틀의 개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리고 거울 조각에 반사된 빛을 통하여 벽에 비춰진 형상들은 숲속에서의 비춰진 빛처럼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숲 속의 평온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12】 <멈추지 않는 1>, 22.7×15.8cm, 장지에 혼합재료, 2023



【작품13】 <멈추지 않는 2>, 22.7×15.8cm, 장지에 혼합재료, 2023

【작품12】 <멈추지 않는 1>, 【작품13】 <멈추지 않는 2>는 왜곡한 사진에서의 부분을 확대하여 그려졌다. 벽돌과 격자 패턴의 반복을 주요한 시각적 기호로 삼고 있다. 곡선적인 흐름, 색채의 경계 흐름, 구조의 이탈을 통해 패

턴은 계속해서 새로운 형상을 생성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은 단순 기하학적인 것이 아닌 시간을 따라 이동하는 감각의 리듬, 지각의 시간성을 나타낸다. 【작품12】 <멈추지 않는1>은 청록과 연두, 파랑 계열의 색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색들을 서로 중첩되게 하며 시간의 흐름과 같이 물이 흐르는 형상으로 연결 시켰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벽돌 구조는, 고정되고 규칙적인 현실의 반복성을 표현한 것이며, 이러한 형상을 곡선으로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상을 발견하며, 직선적 시간 개념과 고정된 공간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적 현실을 보고자 하였다. 【작품13】 멈추지 않는 2>에서는 좀 더 선명한 남색을 사용하여 대비를 강조하였다. 곡선의 흐름은 시선의 경로이자 시간의 흐름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반복되지만 동일하지 않은 패턴의 문양을 반복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작품14】 <불규칙적임 속에서 1>, 34.8×27.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



【작품15】 <불규칙적임 속에서 2>, 34.8×27.3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

【작품14】, 【작품15】는 <불규칙적임 속에서>라는 제목과 같이 언제, 어느 순간,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성 속에서도 각 존재가 고유한 시간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시간이 고정된 절대적인 흐름이 아니듯, 시공간 또한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마치 사람이 매일 다른 옷을 입으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공간 또한 각각의 존재와 맥락에 따라 고유한 색과 형상을 취하며 끊임없이 변화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작품16】 <곳곳이 1>, 25.8×17.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4ea)



【작품17】 <곳곳이 2>, 25.8×17.9cm, 장지에 혼합재료, 2024(12ea)

【작품16】 <곳곳이 1>, 【작품17】 <곳곳이 2>는 특정 장소의 구조물을 확대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도형적 패턴과 색채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도심 건축물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직선적이고 경직된 구조를 이루며 반복되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작업에서는 이러한 반복 패턴들을 왜곡하고 해체하며 시각적인 것을 통하여 직선 요소를 곡선 형태로 전환시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변형을 리듬으로 재구성하며, 시각적으로 유동성과 생동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색채는 채도를

높여 사용함으로써 곡선의 형태를 더욱이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중첩된 회색조는 시간이 흐르며 잊혀지는 기억을 나타내고, 반복되는 붉은 선과 채도가 높은 색조의 색들은 남겨진 감정의 흔적을 강조한다. 색은 단지 표현을 덮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남긴 시간의 레이어로 기능한다. 연구자는 반복되는 시각적 패턴과 그 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 되는지, 색채와 결합하여 어떠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형성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반복은 동일한 요소의 재현이라고 보기보다는 매 순간 변화하는 환경과 시간적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시각적 리듬으로 보고 있다.

본 작업에서는 도시 건물의 외형에서 본 기하학적 패턴을 기반으로, 시간성과 결합하여 유동적인 곡선의 선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고정된 시공간이 아닌 변화와 차이를 기반한 흐름의 작동으로 본다. 시각적 틀 속에서 변화가 축적되며 리듬을 형성하고, 색채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새롭게 지각되는 공간들을 다채롭게 표현하려고 하였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도시풍경을 물리적 배경으로만 보지 않고, 감각과 지각의 층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인 장(場)으로 인식하였다. 정지된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닌 해체와 왜곡, 재구성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시각적 표현한 과정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 연구이다. 그 속에서 ‘왜곡’을 핵심 조형 언어로 삼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시각적 경험과 감각의 확장을 탐색하였다. 도시풍경은 개인의 기억, 경험, 감정, 시간이 중첩된 복합적 이미지로 작용하며, 이는 시각예술의 조형적 해석을 통해 재구성하고 있다.

Ⅱ장에서는 도시풍경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 풍경으로 인식하며,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지각의 현상학 이론을 기반으로 그는 지각을 고정된 외부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몸을 통해 세계와 관계 맺으며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행위로 보았다. 이는 연구자가 보고 있는 도시풍경 역시 객관적 실재라기보다 주체의 감각적 개입과 경험적 해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형성되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왜곡’은 이러한 지각의 경계에서 작동하며, 기존의 인식된 형상을 흔들고 감각의 새로운 틈을 열어주는 새로운 표현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왜곡은 지각과 감각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태도를 담은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는 조형적 접근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진 마이어슨(Jin Meyerson, b.1972)의 작품과 연구자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며 진 마이어슨이 바라보고 경험하였던 현대사회의 도시풍경을 왜곡상으로 드러내는 것과 본 연구자의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를 보며 정지된 이미지는 없다고 느끼는 지각의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에서 그러한 왜곡 속에서 서로는 비슷한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도시 공간의 시간성의 흐름에 따라 느끼는 감각적 체험을 중심으로 도시풍경을 분석하였다. 도시는 고정된 건축물의 집합체가 아닌, 현대사회의 역동성과 사회적 맥락을 보여주면서 개인의 정서와 감정이 스며든 장소이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 된다. 똑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기억, 경험, 감정에 따라 다르게 보여진다.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918-1921)의 색채 이론을 바탕으로 내적 경험에 근거한 내적 필연성의 이론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빛 아래 감춰져 있던 색들의 고유한 정서에 대하여 분석하며, 연구자 또한 본래의 색의 재현, 시각적 외형의 변형이 아니라, 지각의 흐름 속에서의 변화하고 있는 색과 형태들이 어우러지는 감각적 장면을 포착하였다. 색채와 형상은 감정과 기억의 매개체로서 작용하며, 도시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써 도시풍경은 물리적 구조를 넘어, 감각적으로 소통되는 시각적 언어의 장으로 확장되었다.

IV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이론과 데포르마시옹 기법(deformation)과 레이어링 기법(Layering)을 바탕으로 한 구현방식,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왜곡하고 해체한 작업을 본인의 주요 작품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데포르마시옹 기법과 시간에 반응하는 색채의 사용은 도시풍경을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시간적이고 감각적인 존재로 표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형적 시도는 도시를 다시 보는 감각을 일깨우고,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감추어진 감정과 이상향을 시각적으로 환기시킨다. ‘왜곡’은 이처럼 단순한 형식 실험이 아니라, 감각의 경계를 확장하고 지각의 전환을 유도하는 예술적 장치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왜곡’을 중심으로 감각과 지각의 틈에서의 새로운 시각을

여는 방식을 탐색함으로써, 도시풍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 틀을 제시하였다. 도시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몸소 느낀 경험과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감각적으로 재구성하고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예술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 풍경에 대한 감각적 해석과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형상이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법론적인 것도 탐색하며 연구할 것이고, ‘왜곡’을 통한 감각적 전환 순간의 창의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모리스 메를로 폰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2
- 류의근, 메를로-폰티의 『지각의 현상학 읽기』, 세창미디어, 2016, ePUB
- 모리스 메를로-폰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것』, 남수인·최의영 옮김
동문선, 2004
- 실비 쇼크롱·크리스티앙 마랑다즈, 『우리는 어떻게 볼까?』, 김성희 옮김,
믿음인, 2021
- 김철수, 『도시공간의 이해』, 기문당, 2001, ePUB
- 앙리 르페브르, 『리듬분석』, 정기현 옮김, 갈무리, 1994
- 윤미애, 『발터벤야민과 도시산책자의 사유』, 문학동네, 2020
- 길라 발라스, 『현대 미술과 색채』, 한택수 옮김, 궁리, 2002
- 바실리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옮김, 열화
당, 2019
- 정은주, 『색채심리』, 학지사, 2015
- 바실리 칸딘스키, 『점, 선, 면』, 차봉희 옮김, 열화당, 2019
- 윤영범, 『사진, 회화, 그래픽 디자인의 이미지 구성과 테포르마시옹 3』, 커
뮤니케이션북스, 2015, ePUB

학술논문

- 신동진·채완석, 『시지각적 접근방식에 의한 동서양 가로경관 이미지에 관한
연구-Cestalt 지각이론을 중심으로-』, 진주전문대학논문집 제19집,

797-837, 1996

학위논문

조용재, 『증강현실 공간의 지각 특성 - 메틀로-폰티의 지각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김세은, 『시지각을 통한 현대회화의 형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이은진, 『언어 이미지와 형상 왜곡에 관한 연구-연구 작품<Vielheit> 연작의 이미지의 형성 의미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이승자, 『도시공간을 모티브(motif)로 한 유기체적 상징과 추상이미지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인천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평론글

허호정, 『어제와 오늘, 아지랑이의 형상』, 단체전 <3인칭 지구>(2023) 전시 전상희 평문에서 발췌

참고사이트

두산백과, 데포르마시옹,

[https://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WT.a
c=search](https://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WT.a
c=search)

그 외

최수영, 학교재 갤러리 보도자료, 진 마이어슨 개인전 - Enfless Frontier,
2013.08.23.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Distorted Landscapes
to look at the perceptual practice
– Focused on the Researcher' s Artworks –

Jeon, Sang Hee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Modern society changes rapidly every moment, and the scenery we face in our daily lives is constantly changing. Scenes that were usually defined according to a specific purpose and direction are revealed as unfamiliar urban landscapes only when the meaning is lost. The people who filled the space, cars, horns, and countless noises constantly flow with time. This study focused on the work from 2022–2023 and the works included in the master's degree claim exhibition and the works to date.

This paper captures changes within repetitive things in urban landscapes and focuses on constantly moving and moving urban landscapes, not static time and space.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cess of patterning and expressing the distorted

shape of everyday scenes in paintings. Through this, the research focuses on newly recognizing the changing landscape of the modern society and visualizing the transformation process and flow of perception within it. It is not simply recognized as an external structure or repetitive visual perception, but is viewed as a shape that is constantly reconstructed through experiences and sensory experiences. This is based on 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by Maurice Merleau-Ponty (1908–1961), and perception does not simply accept something fixed, but experiences the world through the body and senses. And it is understood as a leading changing process of creating relationships by constantly interacting with the world.

Based on this point of view, it includes the process of recording urban landscapes as photographs and recreating them through visual perception experiments such as digital distortion, dismantling, and reconstruction. In addition, by using Deformation and layering centered on physical properties, the traces of time are stacked on the screen and the flow of senses is visualized. This method functions as a sensory device that opens the gap of perception and presents the possibility of new perceptions that shake the repetitive structure of reality. In addition, in his painting, the researcher dissolves away from fixed reality through fluid curves, ambiguous boundaries, dimming of memories, and shaking of senses, and visualizes the appearance of an ideal blooming from the gap. In particular, the utopia is viewed as a space of possibility that

emerges from the conversion of senses and perceptions, rather than a standardized destination, with the will to open up a new sensory dimension beyond reality in repeated daily life.

Color also acts as an important medium in this study, and based on the color theory of Wassily Kandinsky (1918–1921), the researcher said that color does not stop at just expressing the appearance of objects. It directly affects emotions and minds and functions as an inner language to express and reveal them. Color functions as a medium to express the sensory experience in which the light, noise, season, and emotions of the cityscape overlap. In changing time and memory, color moves fluidly with the passage of time beyond the standardized properties. This movement of color creates a flow of senses and further opens the possibility of newly forming time and space in the psychological dimension.

This study aims to visually reveal new dimensions of senses through the overlap of dismantling and distortion, rather than reproducing reality as it is. Through these attempts, we induce senses in the repetitive landscape of daily life, and seek new possibilities for painting to imagine and explore ideals beyond reality through sensory and perceptual practice.